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 제14회〕

權 五 達
편집위원

▲ 성국종성공숍國宗聖公 증자曾子

【주】증자曾子(기원전 505 ~기원전 432) : 이름은 삼參이고 자字가 자여子輿이며 춘추春秋말 전국戰國초 노나라 남무성南武城 사람이다. 《산동성지山東省志》의 《증자고曾子庫》에서 "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중 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의하면 ' 증삼은 남무성 사람…… ' 이라 했는데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평읍현平邑縣과 산동성 가상현嘉祥縣의 두 가지 설이 있다 " 하고, 정문正文 중간에 나오는 남무성과 무성武城의 두 지명은 원시자료 기술에서 인용한 것이라 하였다. 필자는 증자에 관한 기록 대부분을 《증자고曾子庫》에서 인용하였다. 노魯나라 정공定公 5년(기원전 505)에 출생하여 대략 노나라 도공悼公 35년(기원전 432)에 졸하였다. 공자의 뒤를 이은 저명한 교육가이자 사상가이다.

증자의 선조는 일찍이 증 나라 군주였으나 증조부 무巫가 나라를 잃고 노나라로 옮겨 살았다. 조부 증부曾阜는 당시 숙손씨叔孫氏의 가신을 지냈고, 부친 증점曾點에 이르러 지위가 낮아져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서민이 되었다. 그리하여 증삼은 소년시절 노동에 참가하였고 자기의 힘으로 생활을 고쳐나갔으며, 노동을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효심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 증점은 젊은 시절부터 공자를 수행하며 학습하였고, 공자의 학문이 깊고 넓은 것을 알게 되자 증삼에게서 성취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하고 공자의 문하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반해 증삼은 오히려 더디고 우둔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공문孔門에 늦게 들어갔으나 강한 의지력이 있었고 날마다 스승이 가르쳐준 내용을 돌이켜 복습하여 배운 지식을 튼튼히 숙달시켰다. 공자가 별세한 뒤 오래되지 않아 그는 제자를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였고 공자의 학문을 근본 바탕으로 삼아 후생에게 전수하였다. 그가 가르친 학생은 대략 70인이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8, 9인이다. 그 가운데 악정자樂正子 춘春은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전국戰國시대 유가팔파儒家八派의 하나인 ' 악정씨樂正氏 유학 ' 의 대표 인물이 되며 증자가 《논어》를 정리할 때 주요한 보조 역할을 하였다. 증자의 일생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고, 비록 위衛、위魏 혹은 거莒、제齊、초楚 등의 나라를 방문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일을 고향에서 보내며 빈고한 생활을 하였다. 증자는 공자를 따라서 학습하는 동안 공문에 일찍 들어간 사형師兄들에 비해 돌출한 부분이 많지 않고 공자가 평론한 사과四科, 즉 덕행德行、언어言語、정사政事、문학文學에 있어서도 이름난 제자들 가운데서 그 이름이 빠져 있다. 역사적 추이에 따르면 그는 공자학설이란 명목으로 시종 한결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로 ' 지극한 효심 ' 의 태도에 도달한 성과를 지키려는 집착을 선전하고 있는데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 이르러 그에 대한 추앙을 모두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전국시대에서 양한兩漢시대에 이르기까지 증자의 저작 또는 언어라는 이름을 인용한 것이 잇달아 출현하게 되자 그가 유가 정통사상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당송唐宋시대에는 공자학설의 진의를 충실하게 전한 사람으로 확정되었고, 원대元代에 ' 종성宗聖 ' 이라는 존칭을 얻었으며, 명明나라 때는 제사를 받들기 위한 단독 사당이 섰고 유가사상의 발전사에 공자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로 통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조정에서 일반 사대부에 이르기까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증자의 사상과 행위를 모두 관련지어보면 그 시대에 국한된 성향은 있으나 그에 대한 역사적 공헌은 말살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

증자는 노魯나라 정공定公 5년(기원전 505) 10월 12일에 탄생하여(증자 탄신誕辰은 광서성廣西省 오주시梧州市에 사는 증자의 후예 증소난曾昭暖이 소장한 《증씨종보曾氏宗譜》에 의거하였다) 집안 형세가 중도에 몰락했기 때문에 생활은 빈한하였고 소년시절 몸소 생산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뒤에 공자를 스승으로 받들면서 좋아하는 학문을 부지런히 닦아 후대에 전수함으로써 공자의 학문을 충실하게 계승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함으로써 칭찬을 받았으니 효도로 출세한 사람이다. 스승을 본받아 제자를 모집하고 학업을 전수하여 유학 전파에 공헌하였다. 대략 노나라 도공悼公 35년(기원전 432)에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증자의 사망 연대는 현재 네 가지 설이 있는데 기원전 436년설, 기원전 435년설, 기원전 433년설과 432년설이 있다.

증무曾巫의 아들이 증부曾阜이고, 숙손씨의 가신으로 있었으며 증부는 증점曾點을 낳았고 증점은 증삼을 낳았다. 증부曾阜의 아들 증점曾點은 자가 석晳이고 대략 노나라 양공襄公 31년(기원전 542)에 출생하여 노나라 애공哀公 20년(475)에 졸하였다. 증점의 생졸연대에 관해서는 명청明淸시대 학자들이 지은 증점、증자연보、연표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다. 명나라 시대에 나온 《증점연보曾点年譜》는 증점의 출생이 주나라 영왕靈王 27년, 즉 기원전 545년으로 정했으나 이 설의 근거에 대해 분명하게 밝힌 것은 없고, 안회顔回의 아버지 안무요顔无繇가 공자보다 여섯 살 적은 것을 유추했을 가능성은 있다. 청나라 때 학자 모기령毛奇齡(1623 ~ 1716, 문학가, 절강성浙江省 소산蕭山 사람, 본명은 신 , 자字는 대가大可)의 견해는 공자보다 여덟 살 이하로 적다고 하였으며, 《증씨가보曾氏家譜》는 그가 주나라 경왕景王 3년 기미년己未年(기원전 542) 9월 14일 출생이라 했는데 잠시 이것을 따른다. 청나라 때 학자 웅사리熊賜履(1635 ~ 1709, 청나라 대신, 자는 경수敬修, 호북성湖北省 효감시孝感市 사람)는 《학통學統》의 〈정통正統〉편 증자전曾子傳에 이르기를, 증자가 31세에 그 부친 증점이 졸했는데 기원전 475년이라 하였다.

노나라 소공昭公 20년(기원전 522)을 전후해서 공자가 제자를 모아 강학을 시작할 때 증점과 안무요 등이 공자의 문하에 들어갔다. 공자가 여러 나라를 주유周游할 때는 증점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자가 노나라 애공 11년(기원전 484)에 주유 활동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 증점은 다시 공자에게 배우러 다닌다. 어느날 증점이 자로子路、염유 有、공서화公西華 등과 함께 공자를 모시고 앉아있는데 공자가 각자의 지향하는 바를 묻자 자로、염유、공서화는 모두 대답하였다. 그러나 증점은 그때 한쪽 옆에서 거문고를 타고 있으면서 들은 체만체하였다. 공자가 기다렸다가 ' 점아! 너는 어찌하고 싶으냐? ' 물으니, 증점은 비로소 거문고를 내려놓고 대답하기를 ' 저는 세 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 무얼 망설이느냐? 각자 뜻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 하니, 증점이 말하기를 ' 늦봄에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어른 대여섯과 아이 예닐곱과 함께 기수沂水에 가 목욕하고 무우舞雩(노나라가 기우제를 지낼 때 이용하던 대臺 이름)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 하였다. 공자가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 나도 점과 같이 하겠다 ' 하였다.

증점은 일생동안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증삼을 매우 엄격하게 교육시켰다. 증점이 별세한 뒤 증삼은 아버지를 남성산南城山에 검소하게 장사지냈다. 증삼의 어머니는 《증씨족보》의 기록에는 상관씨上官氏로 되어 있으나 생졸연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고, 《전국책戰國策》과 육가陸賈(대략 기원전 240 ~기원전 170, 한漢나라 초기 사상가이자 정치가로 초楚나라 사람)의 《신어新語》에는 모두 그가 베를 짜던 것만 기재하고 있다. 증삼의 어머니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증점이 다시 재취를 하였으나 그 성씨는 고찰해봐야 안다. 증삼의 계모는 증삼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증삼이 계모에게 매우 효성스러워 세상 사람들이 미담으로 전하게 되었다. 기원전 450년(증삼 56세) 전후로 증삼의 계모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증자는 공자가 47세 때 출생하여 공자보다 46세가 적다. 노나라 애공哀公 원년(기원전 494년) 12세의 증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시서詩書(《시경》과 《서경》)를 배웠다. 기원전 492년 14세에는 태산泰山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큰비가 오거나 많은 눈이 오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기원전 489년 애공 6년에 17세의 증자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초楚나라로 가서 공자의 학습을 따른다. 당시 공자는 여러 나라를 주유周遊할 때이고 이후 증자는 21세(기원전 485년)까지 초楚、진陳、채蔡、위衛나라를 방문할 때도 공자를 수행하며 학습하였고, 21세시로 위나라에 있을 때에는 자유子游(공자의 제자) 등과 함께 상례喪禮에 참여한 적이 있다. 기원전 484년(애공 11년) 증자 22세 봄에 계강자季康子(? ~기원전 468, 춘추 말기 노나라의 대부 계손씨季孫氏, 이름은 비肥, 계환자季桓子의 서자)가 폐백으로 공자를 마중하자 증자는 공자를 따라서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왔다. 대략 이 해에 공양씨公羊氏와 결혼하였고, 이후 공자가 별세하기 전 27세(기원전 479년)까지 공자를 따라서 학습하였다. 노나라 애공 14년(기원전 481년) 증자 나이 25세, 16세 많은 선배 안회顔回가 41세로 세상을 떠났다. 증자는 이듬해 26세에 안회를 추모한 뒤 ' 붕우朋友의 무덤에 숙초宿草(1년이 지난 풀)가 있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 ' 고 하였다.

증자 27세 여름 4월 11일, 공자가 73세로 노나라에서 세상을 떠나자 증자는 동문 제자들과 함께 심상心喪(상복은 입지 않고 상제喪制와 같은 마음으로 근신하는 일) 3년에 들어갔다. 이후 29세까지 곡부曲阜에 있으면서 계속 공자에 대한 상기喪期를 지키고, 이 기간에 다른 동문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갈고 닦는다. 30세에 공자의 심상을 마치고 남무성으로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며 효도를 다한다. 기원전 475년 증자가 31세 때 아버지 증점이 졸하였다. 장사지낼 때 증자는 영구靈柩실은 수레를 더위잡고 상여 이끄는 사람을 멈추어 서게 하였고, 비통한 심정 때문에 7일간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한다. 32세에는 아버지의 복상중이었다. 공자가 졸한 후 제자들이 심상 3년을 마쳤으나 오직 자공子貢만은 공자의 무덤 근처에 여막廬幕을 짓고 3년을 더 거처하였다. 자공이 6년의 예를 마친 이 해에 동문들이 1차 모임을 가졌는데 자하子夏、자장子張、자유子游가 유약有若의 기상이 스승 공자와 비슷하다며 공자를 섬기던 예로 그를 섬기려 하지만 증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원전 473년 33세, 대략 이 해부터 증자는 고향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를 가르쳤다. 38세에는 월越나라 사람이 무성을 공격해오자 증자가 문인들을 거느리고 피신했다가 월나라 사람이 퇴각한 뒤 무성으로 되돌아온다. 노나라 도공悼公 원년(기원전 466년) 증자 40세, 문인들을 인솔하여 노나라를 떠나 위衛나라에 가서 강학하며 제자를 가르친다. 49세에는 증자의 생활이 빈곤하였다. 기원전 456년 50세에 증자는 위나라에서 노나라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하여 제자를 가르친다. 기원전 450년 증자 56세, 계모가 세상을 떠나자 집에서 상을 지킨다. 이 해에 동문인 자장이 질병으로 졸하자 영좌 앞에 가서 애도하였다. 이후 계속 제자를 가르친다. 노나라 도공

11면으로 계속